



월간 헤세드 2월호

2022.2.28

1월 24일~2월 25일 5주동안 총 55시수로 통합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가올 미래, 곧 나의 현실”이라는 주제로 기술,환경,에너지,윤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와 최근 이슈들을 통해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토론 수업을 마치며 그동안 무엇을 배웠고, 배운 내용이 내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김창일 선생님

교육에 대해 다양한 고민을 하던 중 배운 것들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어떻게 하면 배운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이번 통합 수업에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은 환경 문제였다.

모든 문제에는 인간의 과욕이 있었다. 산업 사회 발전과 인구 증가, 의식주 해결을 위한 생태계 파괴 등 인간 중심의 사회가 지구를 마구 훼손하고 있었다. 단순히 한 개인의 실천으로 해결 될 문제가 아니라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찾아가야 한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워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

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는지 너무 깊게 느껴지는 시간들이었다.

알고리즘의 편견 속에 숨겨진 AI의 실체를 알게 되면서 편리하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그것을 이용해 교묘히 사회를 지배하고 이윤 추구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집단들을 보면서 무조건적인 순종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보았고, 늘 깨어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잊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교육은 삶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삶 속에서 중요한 문제를 함께 바라보고 생각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배움의 가치를 깨닫게 함으로써 교육과 삶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나 부터 실천!!

김영우 학생

이번 통합 수업을 통해 얻은 것들이 참 많았다.

내가 싫어하던 코딩도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고 많은 정보를 알고 배우면서 전문가가 된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했다. 관심이 없었던 분야에 대해 공부하면서 세계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떤 일을 해야할지 결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물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과 다양한 사례 등을 통해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도전하고 있다. 샤워할 때 물 계속 틀어놓지 않기, 설거지할 때 물 받아서 사용하기, 양치컵 쓰기 등 작은 일도 매일 실천하면 조금이라도 달라질 것 같아서 노력 중이다.

축산업의 현실을 마주하고 절망에 빠진 순간이 많았다. 우리가 즐겨 먹는 고기(가축)가 비위생적인 곳에서 노예 처럼 사육되고 도축되는 것을 보면서 화가 많이 났다. 인간의 지나친 육식이 환경과 기후문제로까지 이어진다고 하니 스스로 육식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인공지능은 무척 관심있게 봤던 분야 중 하나이다. 현재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되어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궁금했는데 정말 좋은 면도 많지만 편리하게 사용하려고 만든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조금 두렵기도 했다. 인간과 인공지능이 함께 공존하기 위해 제대로 된 윤리규범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신재생에너지는 처음 접해보는 것이었지만 꽤 흥미로운 분야였다.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에너지인 화석연료가 지구 온난화 문제의 주범이다. 세계 여러나라가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연구에 힘쓰고 있다. 지구 평균 기온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과 기업, 나라들이 함께 생각하고 행동해서 지구 온난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이번 학기는 선생님들과 환희와 함께 토론을 하며 많은 의견을 내며 얘기하는데 너무 귀중한 시간이었다. 앞으로 통합수업에서 배운 것들을 늘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환희 학생

5주간 통합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학원도 가야하고 과제도 많은데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다.아침엔 8시 20분 부터 큐티를 하니 늦잠을 잘 수

도 없었다. 힘든 것도 있었지만 하나의 페이지를 만들어 나갈 때마다 보람이 있었다.

발표가 편해졌다. 학교에서의 발표는 수행평가이고 성적에 다 반영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웠다. 처음부터 발표가

쉬웠던 것은 아니다. 지난 학기 영우와 함께 계더타운을 이용해 교실을 만들고 자신이 맡은 부분에 대해 공부하고 설명했던 게 첫 번째 발표였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긴장했던 것 같다. 발표 후 피드백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었고,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수업 주제 중 환경에 관한 수업을 하면서 몰랐던 것을 가장 많이 알게 되었다. 축산업으로 인한 환경 파괴와 물 문제의 심각성을 배울 때 여러번 충격을 받았다. 내가 아무렇지 않게 마시는 커피 한 잔, 그러니까 300ml도 안되는 커피를 만들기 위해 20만ml의 물이 사용되고 있다. 고기의 유통 과정을 통해 지금처럼 먹어도 되

이재은 선생님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통합 수업 진행을 위해 선생님들하고 먼저 1주간 자료 조사 및 스타디를 했지만, 원래 의도했던 결과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었지, 나를 바꾸는 것은 아니었다.

밀리의 서재에서 '환경'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총 203권이 나오고, '출간일을 1년 이내' 필터를 걸어도 50권이 나 찾아볼 수 있다.

수업 준비하며 자료 조사를 할수록 우리가 사는 지구는 '기후 비상사태(climate emergency)'를 선포해야 할 상황이다. 일부 과학자만 심각하다고 말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자료를 하루만 집중해서 찾아보면 다 사라지리라 생각한다.

넷플릭스에서 찾은 관련 다큐멘터리와 영화만 봐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사회는 '돈'이라는 우상에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 다같이 자멸하는 쪽으로 치달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전 학교에서도 중고등 통합 수업 시간을 가지고, 환경과 미래사회를 주제로 수업을 진행한 적도 있었다. 그때만 해도 이정도로 내가 바뀔 줄은 몰랐다.

최지선 선생님

우리가 마주할 다양한 미래의 변화를 빠르게 읽어내는 것과 동시에 사회와 환경문제 등 가장 시급한 문제들과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토론했다.

특히 기후와 환경 문제는 더이상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닌 바로 나 자신의 문제, 생존의 문제임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언제나 톱 이슈 중에 하나였지만 누구나 그렇듯 자신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중요해도 우선순위에 밀리게 되는데 기후나 환경문제가 나에게서는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다.

가족들과 친환경제품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 일일이 찾아서 따로 주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또 가격면에서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망설여지는 것이

는걸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고기위주의 식단이 건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매일 비건으로 사는 것은 아직 무리지만 하루 한 끼는 채식으로 먹어보자고 마음 먹었다.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은 우리들인데, 정작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은 잘 배우지 않는 것 같다. 그저 교과목을 공부하고 시험을 본다. 익숙한 방법이 꼭 옳은 것은 아닌 것 같다. 미래를 살아갈 우리가 직접 미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5주 동안 나에게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고, 평소에 하지 못했던 토론수업, 탐구활동이 의미 있었고 언제 또 있을지 알 수 없는 시간이지만 또 함께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지인이 열심히 제로 웨이스트의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나는 어깨가 아파서 저렇게 무겁게 가방 안에 다 넣고 다니는 것은 불가능한데.. 하며 분리수거 열심히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았다.

일회용품을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고, 배달 음식도 잘 이용하지 않고, 택배도 종이박스 보다는 가방을 사용하는 곳을 이용하고, 달걀은 비싸지만 동물복지 마크가 있는 것만 사고, 나름 환경을 위해 삶에서 기본적인 것은 실천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으로 충분한가??

나의 50대와 60대는 안전한가?

내 삶이 변했다. 부모님께 다크 '몸을 망치는 자본주의의 밥상' 보여드리고, 바로 우유와 요구르트 배달을 끊었다. 비건 식생활을 시작했다. 물을 쓸 때마다 '배급수'라고 생각하고 쓴다.

전기 코드를 필요할 때만 쓸 수 있게 조절하고, 필요 없을 때는 코드를 뺀다.

제로 웨이스트 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배운 것을 열심히 나누게 되었다.

코딩을 적극적으로 배우게 되었다. (알고리즘의 편견: 원리를 알아야 문제도 알 수 있을테니)

페이스 북을 안하게 되었다.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

사실이다.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이전과 같은 생활로 돌아갈 것 같은 불안함에 일단 입으로 내뱉어 선언하고 바꿀 것을 결단했다.

식생활 개선도 나에게서는 커다란 숙제다. 육식 위주의 식단을 줄이고 갑자기 채식으로 늘려가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일인데 열심히 레시피를 찾아보며 맛있는 채식요리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중이다. 요즘 장바구니가 온통 풀밭이다 ^^완전한 비건이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 서서히 몸에 좋은 재료들로 바꾸어가려고 한다.

물, 공기, 전기, 불 등의 다양한 에너지와 각종 식재료들은 내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기에 위기감이 전혀 없었다. 학생들과 함께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나만의 10가지를 표로 만들어 일주일간 실천해보니,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반면 쓸데없이 낭비

하는 것도 아주 많았다. 불편하니까 바꾸지 않는 것이고 귀찮으니까 지키지 않는 것들인데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떨어내려고 한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불을 빨리 끄지 않으면 피부는 검게 그을려 다시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다. 말로만 뜨겁다고 가만히 서서 외치지만 말고,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재빨리 움직이는 행동의 변화가 필요할 때다.



<https://youtu.be/2gu2w7IB1UI>

알고리즘의 편견 : 우리가 모르고 있던 AI의 편향된 성향의 존재와 그 이유에 대해서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https://youtu.be/gEdwBpEVb18>

카우스피라시 : 우리가 몰랐던 충격적인 소고기에 관한 음모와 불편한 진실. 환경오염의 주범인 축산업은 왜 제재 대상이 아닐까?



<https://youtu.be/F-dneEJWa9s>

브레이브 블루 월드 : 세계 각지에서 물 부족과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다.



헤세드 온라인 독서 모임 안내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의 가장 뛰어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다.” - 데카르트

독서~ 참 좋는데, 혼자 하기 힘드시죠?

함께 읽고, 생각하고, 나누는 독서모임에 초대합니다.

헤세드 온라인 독서모임, 22년 1학기 과정을 시작합니다. 한국어로 책을 읽고, 글로 생각을 정리하고, 나누고 싶은 초등 6~ 고 3 학생이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12주동안 매주 월, 수 저녁 7:00~8:00(한국시간)에 Zoom으로 만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1. 대상: 한국어로 책을 함께 읽고 싶은 초등 6~고 3 학생.
2. 기간: 2022년 4월 4일~7월 6일 (12주, 24번 모임)
월, 수 저녁 7:00~8:00(한국시간) -> 한국 공휴일만 지켜 쉽니다.
3. 준비물: 'Zoom으로 모이기 위한 디바이스, 인터넷 연결, 구글문서 사용.
4. 회비: 5만원(5000엔)

한국 계좌 : 신한은행 계좌 110-091-444866 이재은
카톡 송금 가능(이재은 ID bluesk21)

일본 계좌 : 三井住友銀行 長野支店 普通 3919213
トクテイヒエイリカツドウホウジンマノア

※할인혜택: 소속 학교 선생님 독서모임 봉사시 해당 학교 학생 1만원 할인
KOKI mini school 출신 1만원 할인

5. 문의: 이재은 bluesk21@hanmail.net, 카톡 bluesk21

<함께 읽을 책과 교육과정은 신청자에게 안내합니다.>

주제통합 수업 관련
영상 자료 링크

후원방법

1. CMS 자동이체 신청(연말 정산 가능)
CCC 선교회후원회(02-397-6300) ->
후원번호 3811 이재은(CCC 협동간사)
CMS자동이체 정보 -
<http://soon,kccc.org/support?Code=428>
2. 일반 후원(연말 정산 불가능)
신한 110-091-444866 이재은
농협 302-0589-5956-51 이재은
3. 일본 후원
銀行名: 三井住友銀行 長野支店
口座番号: 普通 3919213
口座名: 特定非営利活動法人マノア

헤세드 블로그

페이스북 비사용자를 위해서
헤세드 블로그를 운영중입니다.

<http://www.schoolstory.hesedsch.com>

헤세드 기도제목

1. 헤세드 스쿨을 이끄시는 대로, 우리 모두가 온전히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2022년 한해가 되게 하소서.
2. 독서 모임이 은혜가운데 잘 모집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3. 3월에 중학교를 졸업하는 영우의 진학과 진로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싶어하는 영우의 필요를 채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4. 교사들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고 성령충만하여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내게 하소서.
5. 3월 26일 졸업식 준비가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